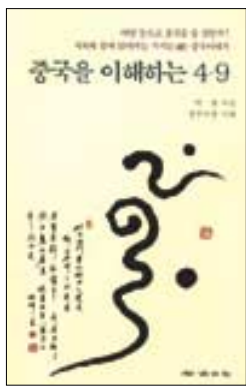


# 중국 어떻게 볼 것인가

36가지 주제로 본 중국인의 속내 읽기



중국을 이해하는 49 박현 지음 바나나 | 1만원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년 후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로 전체 응답자의 37.7%가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남부쿠이 주한 중국대사는 3월 22일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테러란 대등에 양국의 정치적 입장은 같으며,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엄청난 대중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서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국대사의 말처럼 현재 한·중 교류는 거의 전방위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많은 교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표피적인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중국과 중국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보통 중국과 중국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단어로 특징을 표현하기 힘들다고 한다. 중국인들의 속내에 자리한 상인기질과 관계의 다중성은 그들의 진짜 생각을 어렵게 한다. 그도 그럴것이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과장법이나 어머니만 빼고 진자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중국이기 때문

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4·9〉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발간된 책이다.

책의 내용을 보면 36가지 주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중국을 보는 거시적인 눈을 갖는 ‘중국이 세계다’에 대한 진술이다.

왜 중국은 세계인가? 책의 내용을 보면 15억 인구가 살아 가는 방식과 조건 등을 총괄해서 ‘중국이 세계’인 까닭을 밝힌다. 56개 민족이 지리적 환경과 결합해 중국의 각 지역은 뚜렷한 문화적 독자성을 띠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럽연합 보다 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인위적인 세계국가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개되는 중국인다운 기질 및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상인에 가까우며, 상업적 목적으로 열리는 상업박람회에도 상을 준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친구’는 형제와 같은 친구도 될 수 있고, 오랜 거래자도 될 수 있다.

두번째는 복잡한 중국문화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중국인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본 안목으로 바라보는 재미가 펼쳐진다.

즉 유학이나 공산주의 등 중국의 이념과 한자 등의 특징과 맞물려 있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정치나 종교의 영역에서도 그 기질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이 책은 결론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대의명분과 실리추구라는 양면성 혹은 다중성

을 명쾌하게 볼 수 있는 안경 같은 구실을 한다.

구체적인 실례를 보면 중국에는 도교사원에 천주교 성모 마리아상이, 불교사원에 도교신이 모셔지며, 중국음식이란 각 지역 대표음식만 있을 뿐이다. 또 중국에선 담배나 감기 약의 경우 같은 성분인데도 값이 열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세번째는 중국인들의 처세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중국에는 황비홍과 서비홍이 있는데 이들은 대세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처신한다. 그런데 두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고 같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문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유교는 역사와 대의명분을 짊어진 기둥이고, 도교는 보이지 않는 국교이다.

마지막에는 글은 이의 경험에 기초한 글이 수록돼 있다. 중국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글이다.

저자는 중국을 지탱하는 세 가지 박자(공산당, 상인, 지역적 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변화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구이며, 그로인해 발전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격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인 박현(한국학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부터 언어학과 인간학에 기초해 시대적 흐름과 함께하는 글을 줄곧 써왔다. 독실한 불자인 그는 현재 중국 장쑤성 이싱시와 윈난성에서 도자예술관과 국제민족문화원의 건립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변증법적 지평의 확대> <한국경제사입문> 등 사회과학서와 <우리사상의 고향을 찾아서> <한국고대사지성사산책> 등을 다시하는 동양학 <불교수행론> 등이 있다.

김원우 기자 wkim7@buddhapia.com

## 네티즌강추

세속적 가치를 뛰어넘어 제주로 간 자유인

그 섬에 내가 있었네 휴먼앤북스 김영갑 지음

안정을 포기하고라도 그로 인한 책임과 무게에서 벗어나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영갑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자유의 즐거움만이 아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빈곤과 외로움, 세상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그는 오히려 더 많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책은 아름답지만 무척이나 슬프다.

제주도의 풍광에 반해서 이십여 년 가까이 살면서 사진에 담았다. 제주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주에 놀러 사는 것이 더 외롭고 힘들었던 그의 삶... 책은 이 모두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그러한 이야기와 함께 김영갑이 찍은 사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책을 읽는 기쁨이다. 그가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기 위해 가장 적당한 형식이라고 생각한 파노라마 사이즈의 사진이 책 곳곳에 풍부하게 실려 있다.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벚을 읽고 바라볼 만큼, 그의 영혼이 담긴 그 사진들은 아름답다. (신영주, kr.yosp.shopping.yahoo.com/ysp/lib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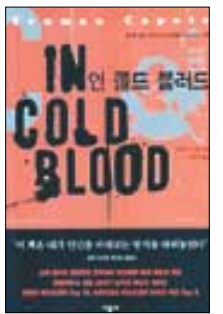
시골마을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둘러싼 진실찾기

인 콜드 블러드 트루먼 시공사 카프티 지음

〈인 콜드 블러드〉는 당시에는 이제껏 소설 형식이 취하지 않은 노선을 택한 작품이다. 논픽션 노블이란 어리둥절한 장르를 독자하게 저널리즘 소설처럼 적나라한 고발을 하면서 동시에 문학적 행태를 풀풀 풍긴다. 일석이조의 극대화.

작가는 뉴욕타임즈 신문기사에서 이 살인 사건 접하고 흥미를 느껴 친구인 하퍼 리의 직접 그 마을에 찾아가고 한다.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건과 관계된 온갖 것을 조사했다. 주민들과의 인터뷰, 마을의 동향, 세상의 관심 등...

여하튼 6년의 기록이 530쪽에 달하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주민들은 서로간의 불신을 키워간다. 작가의 서술 특징인 주민들의 증언을 듣다 보면 마을이 공포 분위기로 얼어차려 상층층해졌는지 대변에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증언식의 기법으로 인해 〈인 콜드 블러드〉가 여타의 작품들보다 출중하고 개성있는 면모를 과시한다고 생각한다. 사실과 허구를 좀처럼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진실이게끔 보여주는 힘 때문이다. (천하통일, www.yes24.com/Goods)



## 책속의 밑줄긋기

○...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글을 쓰게 만드는 질병은 또 무엇이 있을까? 사랑, 특히 불행한 사랑은 비록 병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원인보다 치명적이다. 물론 사회적 격변, 젊은 시절 고국을 떠나야 하는 망명, 비극적인 전쟁 등 다른 형태의 고통도 글쓰기를 촉발시킨다. 하지만 이런 원인은 외적 위험 요인으로 글쓰기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특히 응답없는 짝사랑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다. 그리고 자존심은 글로 치유된다.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에게 글을 쓰고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커지는 법이다. 우리가 쓰는 단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피그말리온의 갈라테아 조각상 역할을 하게 된다. 상실의 아픔이 흡수될 때까지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도 그만큼 더욱 커진다. -〈하이퍼 그래픽: 위대한 작가들의 창조적 열병〉 65쪽에서, 휘슬러, 엘리스 플레허티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교리**

- 1. 불교란?
- 2. 부처란?
-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 5. 사찰경내 예법
- 6. 합장과 반배
- 7. 고두례
- 8. 예불문
- 9. 삼보
- 10. 삼귀의
- 11. 삼보인

**법요집**

- 1. 삼귀의
- 2. 진의합니다
- 3. 반야심경
- 4. 임경
- 5. 청법가
- 6. 법문
- 7. 장군
- 8. 발원 및 축원
- 9. 사홍서원
- 10. 선회가
- 11. 기타찬불가

과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스님 운허스님 (정가 14,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명만 드립니다.)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http://www.mahamall.co.kr) 02-732-1520

바로보인의책들 대한문물서한신사상역사 / 조지아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게자 대한 문제현 선사님 역집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선사(禪史)!

바로보인 권동욱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칠푼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닦아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대 소일마다 대한 문제현 선사의 사승이 화살을 피하여 격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노닐면서 직접 만든...

### 산수조청

- ◆ 산수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 산수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입니다.
- ◆ 산수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뜻이오르지않은 **산수참옥 조청** 1.2kg  
이월,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산수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가래,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지키는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빈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 × 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수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금융사 054)372-3166
- 입금 처: 동원 727077-52-056761(현순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산수조청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특허제품

기종: 미중, 방벽

원두막 검방기로 7000×4000×3200[mm] 총보합인거 639만원 - 550만원

눈비를 맞아도 썩지 않는 조립식 원두막 전기 패널만 깔면 겨울에도 사용가능

평상 1500 × 620 × 350[mm]가:150,000 할인가:120,000  
1800 × 1630 × 350[mm]가:180,000 할인가:150,000

특수 제작된 폴리프로필렌은 눈.비.햇빛에 썩거나 변형되지 않아 보수비용이 필요없음  
특히 보온 조립이 간단하며 얼매든지 연결 사용 할 수 있는 평상

조립식 원두막 전문업체 **지구산업** TEL: (063) 323-3010-1  
www.bangaro.com FAX: (063) 323-3012  
평상.net / 원두막.kr

계좌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전화수령서 무료배출 [전문목부기배출] 지역대리점 모집